

## 어항, 어촌개발 거점으로 구실 막중 시설 완벽하게 갖춰져야

꼭 필요한 곳 선정투자, 형식적 사업 지양을



최 정 운  
(부경대 교수)

우리나라는 연안도처에 대소의 어항이 발달해 있고, 이 어항을 통해 생활과 경제를 도모해 나가는 국민의 수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어항은 물론 어선의 입출, 계류, 정박을 위한 시설이 기본이 되나 그밖에도 어항에는 어업생산물의 거래, 수송, 저장을 위한 각종 시설과 생활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연안의 어업사회가 발달해 나갈 수가 없다.

우리가 어항을 어촌의 중심지로 혹은 어촌사회의 핵과 같은 거점장소로 생각하는 것은 어항이 갖추어야 하는 어업기반시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어항을 중심으로 인구나 교통이 집중되고 물류가 일어나며, 어촌과 어촌을 서로 연결하는 사회 경제적 활동의 매개 기능으로서 어항이 갖는 역할

도 못지않게 중요한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산업화와 함께 어촌인구의 격심한 유출과 어촌사회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의 하나는 어항이 갖는 사회 경제적 기능의 마비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하여 어항이 어촌에 인구나 자본을 끌어들이는 힘보다는 이를 배출시키는 효과가 높는데 따른 결과로서 오늘날 우리의 어촌은 모든 것에 활기를 잃고 있다.

어항이 어촌사회의 거점으로서, 그리고 어촌사회발달의 중심부 역할을 하는 핵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한편 어항시설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바뀌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첫째, 어항은 어촌의 경제활동이 왕성하고 자본이 집중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항의 기본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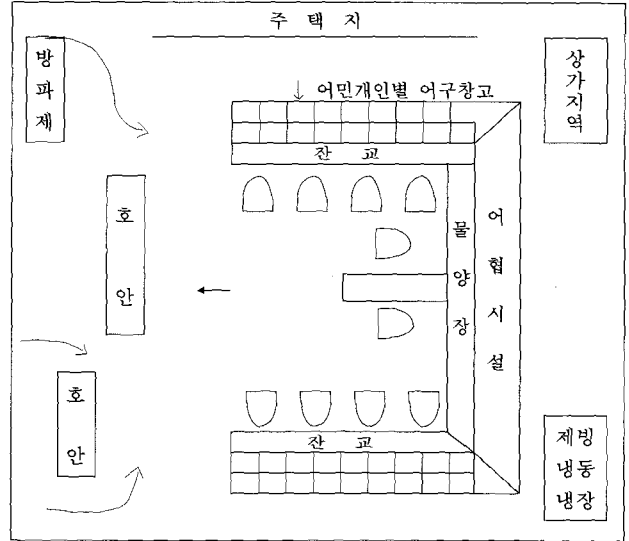
최근 정부는 제1종 및 제3종어항에 대한 시설내용과 종류를 확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선박의 계류, 잔교, 호안 등의 시설은 물론, 그 밖에 필요한 부대시설까지도 망라되어 있다.

정부가 어항의 종류에 따라 시설내용을 규정하고, 앞으로 어항건설시 그와같은 내용의 시설물과 기능의 배치 여부를 가지고 어항시설의 양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문제는 그와같은 기본시설의 형식적 나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어항건설과 축조시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투자와 사업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 시설의 활용도를 더욱 높여가도록 여기에 어업생산이 대응되어야 할 것이다.

금년 8월 하순 필자는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3명의 교수들과 함께 일본의 소규모 어촌과 어항을 7일간 시찰하였다. 일본 「큐슈지역」 소재 3개의 어촌을 둘러보았는데, 다 같이 어가세대 수 100호에서 200호 미만의 소규모 어촌이었는데도 어항의 기본시설은 완벽하게 해 놓고 있다는 것을 공통으로 보고 느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제 2종어항에도 들지 못하는 아주 작은 촌락어항이었는데도 다음 <그림>처럼 「□」자형의 계류장에 적어도 150척 내지 200척 규모의



<그림> 日本의 天草, 玄界, 茂木の 3 어촌 어항시설의 공통모형

어선을 한 곳으로 안전하게 계류, 정박시킬 수 있는 어선 정박시설과 잔교설치를 완벽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해 놓고 있었다.

태풍 등으로 부터의 선박피해와 선착장 보호를 위하여 바깥에는 한결같이 이중 삼중의 호안과 방파제를 축조해 놓고 있었으며, 선박들은 해상의 어로작업시 난선의 구조, 불법조업, 조업구역위반 등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어선에 「페인트」 도색과 번호를 선명하게 구분해 놓고 있었다. 어민재산과 각종의 시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깊이 배려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었다.

둘째, 어업생산물의 거래, 판매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어항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항의 부대시설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어항의 성격과 크기에 따라 그 내

우리가 어항을 어촌의 중심지로 혹은 어촌사회의 핵과 같은 거점장소로 생각하는 것은 어항을 중심으로 인구나 교통이 집중되고 물류가 일어나며, 어촌과 어촌을 서로 연결하는 사회 경제적 활동의 매개기능으로서 어항이 갖는 역할도 못지않게 중요한 때문이다.

용도 달라질 수 있다. 기본적인 것으로는 급유, 급수시설, 수산물 양륙, 처리시설, 제빙, 냉동, 냉장시설 등 가격완충시설, 창고시설, 주차장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다.

일본의 어항에는 어민들이 개인별로 10평 이상규모의 어구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협이 선착장에 공동으로 시설하고, 이것을 임대해 주고 있으며, 웬만한 생활용품과 생산자제는 현지에서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어협의 구매사업과 현대식 슈퍼마켓이 잘 구비되어 있었다.

어항부대시설은 어업활동을 촉진시키고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증대시켜, 어촌생활을 보다 풍요롭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셋째, 어항을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생활을 편리하게 해 나갈 수 있는 어항 간접투자가 확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촌의 도로, 통신 등 사회간접시설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개의 어항시설은 선착장과 방파제의 조성으로 끝난다. 어촌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항건설과 동시에 어촌구조자체의 정비사업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촌진입도로의 개설, 어촌내의 도로, 교통의 정비, 공중전화설치, 어장진입로 및 해안도로의 개발 등을 포함한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이 뒤따를 때 어촌생활은 더욱 편리해지며, 어업생산성의 향상과 주민들의 통학 및 외부지역간의 교역과 소통이 촉진될 것이다.

넷째, 어촌의 정신과 문화의 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어항건설이다.

어항의 건설은 곧 어촌의 사회개발

을 의미하므로 어촌주민들이 수산업 생산활동만으로 어촌에 정주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어항에는 어촌센터, 노인, 부녀자의 복지관, 유아 청소년시설, 슈퍼, 보건소, 우체국 등의 유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초등학교의 설치는 말할 필요도 없다.

서구의 어항에는 어느 곳을 가든 반드시 해양의 상징물을 모형화한 교회나 사당이 있는데 일본의 어촌에는 신사나 그 마을 고유의 사당과 같은 것이 필수적인 시설처럼 서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시설과 장소는 마을의 행사나 축제를 준비하고 개최하는 등 지역문화를 계승, 개발하고 지역민의 정신적 유대와 통합에 기여하는 문화유지기능을 하는 것들이다.

우리나라 어촌에도 어항개발계획에 그 고장 특유의 어업발달과 어업문화를 살릴 수 있는 어촌민속, 해양문화 또는 수산박물관 등의 유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난 1994년부터 농특세를 재원으로 한 갖가지 어촌개발사업과 어항투자사업이 전국적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어민들은 모두 이와같은 사업에 대해서 굉장한 고마움과 함께 그의 개발효과도 높아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와 사업이 어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은혜나 시혜로 비쳐져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어촌투자든 농촌투자든 아니면, 도시투자든 그것은 정부의 능력범위 안에서 해나가야 할 당연한 사업이며 시책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어느 정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특

별한 배려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지나친 선전과 자기업적 과시가 팽배하다.

그러다보니 별로 규모가 크지도 않은 투자액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거나 자금이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투자가 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사업만 벌여 놓은 곳이 적지않다. 그리고 공사의 뒷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하여 언제 태풍이나 수재 등의 영향을 입을지 우려되는 곳도 많다.

주무관청이나 담당자들의 말을 들으면 이것도 이 정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힘들게 유치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라거나 예산부족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듣는다.

어항이 어촌사회의 인구와 자본을 집중시키고, 이를 중심으로 또 분산 배분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와같은 존재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항이 어항으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시설은 물론, 그밖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을 충분히 그리고 현대화해 나가고 내용을 고도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설과 투자를 통하여 누구든지 와서보면 어촌다운 분위기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어항시설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때, 어촌의 경쟁력은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어항건설이나 어촌종합개발에 얼마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거나 전국적으로 몇 개소의 어촌을 투자대상에 넣었다는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누가와서 보든, 세월이 지난 훗날에도 과연 이와같은 어항축조와 어촌건설에 투자하느냐고 많은 신경을 쓰고 다각적으로 그의 기능을

높이도록 충분히 노력한 흔적과 정신을 찾아볼 수 있는 어항건설 내지는 어촌종합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지난 3월에서 6월사이에 전국의 해안별로 몇몇 어촌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과거에 조성된 어항을 볼 수도 있었고, 최근에 정부에서 투자한 어항도 보았다. 그중에는 시설을 튼튼하고 편리하게 해 놓은 곳도 있었는데 하면, 큰 태풍이 오면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곳도 있었다. 또 바위나 돌을 주워모아 그냥 「세멘트」로 발라 놓은 듯한 거칠고 조잡해 보이는 곳도 있었다.

자동차시대에 대비하여 주변에 차들을 일정하게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나, 해안도로 중간에 차들이 서로 피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공간 조성과 같은 것에는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었다. 이 정도 도로를 내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느끼게끔 강요당하는 것 같은 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마음가짐은 과다한 물량확보에만 관심을 집중시킨다거나 어촌에 전에없던 선물을 한다는 군림의 자세에서 벗어나,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어촌주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갖추어 주느냐 하는 의무와 책임감이 앞선 어항건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주 작은 어촌일지라도 앞으로 그곳에 어민들이 모여들고 도시인들이 어느 때나 와서 어촌과 바다의 매력을 한껏 즐길 수 있는 그와같은 어항과 어촌을 정성을 들여 만들고 가꾸도록 해야 할 것이다.㉔

어촌 작은 어촌 일지라도 앞으로 그곳에 어민들이 모여들고 도시인들이 어느 때나 와서 어촌과 바다의 매력을 한껏 즐길 수 있는 그와같은 어항과 어촌을 정성을 들여 만들고 가꾸도록 해야 할 것이다.